



가득

## 청년 사회교리 Academy ‘이제 뭐 하지?’를 마치며

이지윤 미카엘라  
해운대성당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성당에 다니고 있고, 세례를 받은 지 1년 된 병아리 신자 이지윤 미카엘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사회교리에 나가 첫 자기소개에서 나는 내가 병아리 신자라고 소개했다. 이름 뒤에 세례명을 붙여서 소개하는 것도, 서로를 자매님과 형제님으로 부르는 것도, 미사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신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있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다.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새로 생긴 ‘미카엘라’라는 이름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이지윤’은 사람들이 시끄럽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지만, ‘미카엘라’로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제 뭘 해야 할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나의 주변에는 신자들이 많이 없어서 또 다른 미카엘라들의 생각을 엿보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이번 사회교리 아카데미의 이름인 ‘이제 뭐 하지?’를 보고 나에게 답을 찾아 줄 것 같아 함께하게 되었다.

이번 사회교리에서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 있는 사회의 모습들에서부터 난민 등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들까지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모인 이들의 각자의 입장에서 사회의 문제점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다양한 시선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강의를 들으면서 신자로서 기억해야 하는 마음가짐을 깨달을 수 있었다.

긴 시간을 끝내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들은 이웃, 연민, 연대이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어려운 상황의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연민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나치지 않고 이웃과 연대해야 한다. 타인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바쁜 사회에서 꽤 힘이 드는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모인다면 사회의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연대하는 것이 바로 ‘이지윤 미카엘라’가 해야 하는 일이다. 🌿



✝ 이달의 기도 지향 :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하여

##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인 선택

차광준 다윗 신부 임호성당 |

최근 전세계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하여 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유례 없는 이상 기후 현상들로 인하여, 먹거리 생산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그 영향으로 전세계 경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어가면서, 갈수록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은 더 가난해져 가고 있고, 이제는 최소한의 인간 생존권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다. 정말 이러다가 전 인류가 심각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톨릭 교회 역시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직면하면서, 전 세계 교회가 한마음으로 ‘생태적 회개’에 앞장서도록 기도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환경 속에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간 생명을 지켜가기 위하여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톨릭 교회는 항상 사회 구성원들과 동반의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인 선택”의 입장을 지켜왔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은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느님의 창조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차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사도 10,34)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하느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재화를 인간에게 공평하게 사용하도록 명령하셨다. 하지만 인류는

이를 힘의 질서에 따라, 정치, 사회, 경제적 논리에 따라 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지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져만 갈 것이다. 물론 ‘가진 것이 죄’는 아니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성공을 이루는 것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모습이다. 하지만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가 만든 세상의 운영 질서에 따라 현재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재화는 하느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많이 가진 이는 하느님으로부터 많이 맡겨진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더 많은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이다. 그 책임은 가진 것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는 의무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께서서는 무제한적으로 계속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재화를 끊임없이 제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만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재화를 끊임없이 주신다면 우리는 분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단지 즐겁게 소비만 하면 될 뿐이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당신 뜻에 따라 창조하시고, 이를 잘 유지하고 지켜가도록 인간에게 맡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것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분배해야 하는 책임만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재화의 균등한 분배에 앞장서지 않는 것은 단순

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지 않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모든 이에게 충분하게 주어진 하느님의 것을 소수만이 소유하고 다수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것을 횡령하는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하는 것을 훔치는 것이다. 재화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을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재화를 올바르게 분배하는 분배 정의에 참여하는 것은 가진 자의 선의나 호의를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원래 주인의 것을 돌려주는 당연한 행위이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이 충분히 있다고 그것을 낭비하거나 마구잡이로 소비해 버리면, 결국 누군가는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창조 질서이다. 이는 과학 법칙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는 물리학 법칙 중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배웠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에너지 총합은 일정하다는 과학 법칙이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바로 분배 정의의 필요성을 정말 잘 설명해주는 과학 법칙이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재화의 총합은 일정하다. 그 재화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쪽에선 반드시 결핍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 주어진 이득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주어진 손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배 정의가 올바르게 서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가 분배 정의를 끊임없이 외치며 이

를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도록 을 바로 다스리기 위함이다.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가난하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이웃들이었다.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요즘처럼 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전 세계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들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에 앞장서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전기민영화 vs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 전기민영화의 시작

1998년 이후 김대중 정부는 IMF의 권고 조치로 한국 통신을 민영화한다. 반면 한국전력은 국가 기간산업인 에너지 민영화에 대한 반대와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한전은 매각이라는 직접적 민영화가 아닌 전력 생산을 민간 기업에 허용하는 은밀한 민영화로 진행됐다. 신축 발전소에 SK, GS, 포스코 같은 대기업이 진출하고 한편으로 한전의 자회사인 공기업을 민간 기업처럼 경쟁시켜 이윤에 따라 사업을 재편했다.

2018년 12월 석탄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를 관리하던 23세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가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다. 발전 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외주화의 형태는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우회적 민영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 전력산업의 구조

한전이 소비자에게 전기를 제공하는 과정은 우선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 전기는 송전탑을 거치고 전압을 낮추는 배전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이렇게 발전, 송전, 배전, 판매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2001년까지 모두 한전에서 담당하던 이 과정은 송배전과 판매만 한전이 담당하고 발전은 한수원과 남동, 중구, 서구, 남부, 동서의 화력 발전 회사가 담당한다. 한전은 이 6개 발전 공기업을 자회사로 분리해 서로 이윤 경쟁을 시켰다.

원래 전기는 공적 부분이어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2002년 이후 발전 기업들의 경쟁과 대기업의 진출로 판매 과정에 증권거래소처럼 전력거래소라는 시장이 생겼다.

## 전력 도매시장의 운영

발전 기업은 매일 발전 단가를 전력거래소의 입찰 가격에 올리고 전력거래소는 최저가인 원자력 발전소부터 가동을 지시해 전기수요가 많아지면 가격 단계별로 생산을 지시한다. 현재 가장 비싼 발전소는 LNG 발전소다. 정산은 가장 비싼 단가로 책정되며 전력 시장에서는 원가와 별도로 하나의 가격이 존재한다.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가 수익이 크지만 공기업은 정산조정계수를 통한 낮은 가격이 적용된다. 반면 주로 민자 발전소인 LNG 발전은 인위적인 가격 조정 없이 큰 수익을 올린다.

## 재생에너지 산업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시장경쟁의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기를 판매할 때 도매전력가격(SMP)이 낮기 때문에 사업자를 지원해 주는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제도가 있다. RPS는 발전 기업이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는 것으로 생산이 부족한 기업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재생



에너지 증서를 구매한다. 이 증서는 주식과 같이 가격이 변동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SMP가격에 REC(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사업자가 발전 기업에 REC를 판매하고 이 비용은 소비자한테 전기세로 청구된다.

### 시장 개방과 민영화

현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시장 원칙에 따라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개방하며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한전의 판매 독점 해체는 시장을 개방해 대기업도 전기를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시장을 개방하면 경쟁으로 효율성이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민영화가 진행된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경제는 약화되고 요금은 오르는 것이 밝혀졌다.

### 한전 적자 문제와 방안

한전은 연말까지 30조-40조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것은 한전이 공기기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전기 구매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의 차이 때문이다. 현 정부는 전기세를 인상하고 한전의 부동산이나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을 매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가능하다.

첫째, 민자 발전의 초과수익을 줄이는 것이다. 민자 기업의 상반기 이익은 약 1조 원이다. 산자부에서는 전력 도매가격 상한제를 검토했지만 기업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이것을 도입한다면 1년에 약 2조 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둘째, 경부화 요금이다. 기업들은 2015년부터 19년간 한해 1조 원 이상 원가 이하의 심야 전기할인 제도를 받고 있다. 그것을 줄이면 적자도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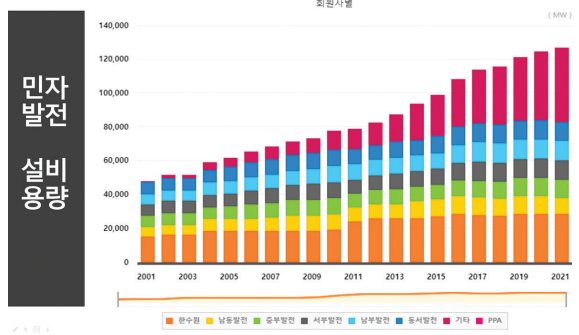
셋째, 대기업의 전기요금 인상이다. 현재 대만도 15% 인상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50대 대기업에 대한 적자가 연간 약 7조 원인 것을 볼 때 일반 시민의 요금 상승보다 더 정의롭고 평등한 것으로 산업용 전기세의 인상폭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8조-19조 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가능하다

에너지는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로 사회적 가치를 위한 사업 방식이 이루어져야 된다. 환경 운동은 연료의 성질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를 살피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공공적이고 민주적이며 생태적 가치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된다.

우선 화석 연료 자본 기업을 통제하고 민자 발전사에 대해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기기업과 시민들의 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공영화 운동이 필요하다. 기후위기의 공정한 에너지 전환은 공정성과 민주적인 의사 결정 그리고 이윤 체제로부터의 탈피가 필요하다.

※ 기후정의동맹 홈페이지, 자료, 소책자<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가이드 북: 이윤을 넘어 공공 민주 생태로 기후정의동맹> 내려받기 <https://bit.ly/3DKLjQz>



### 더 나쁜 사례, 해상풍력: 금융자본, 외국자본 진출



- 맥쿼리(GIG) 부산청사도, 다대포, 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 가장해상풍력발전, 해운대해상풍력발전, 거문도해상풍력발전, 맹골도해상풍력발전, 부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
- 오스테드 인천해상풍력1호, 인천해상풍력2호
- 에퀴노르, 엘, 토탈, 플렉룩 ...

### 2022년 1분기 전력 다소비 기업 전력판매 실적

기업명	전력사용량(GWh)	전기요금(억원)	판매단가(원/kWh)	한전 손해액(억원)
삼성전자	4,741	4,607	97.22	2,786
SK하이닉스	2,310	2,231	96.64	1,371
현대제철	1,849	1,814	98.11	1,070
삼성디스플레이	1,590	1,555	97.83	924
엘지디스플레이	1,517	1,479	97.48	887
포스코	1,339	1,159	86.60	929
에스오일	991	958	96.72	587
LG화학	947	942	99.51	534

10월 10일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이야기의 주제강의를 고은영 베로니카 정평위원이 요약하였습니다.

## 조난

최윤호 로마노 신부 서대신성당

조난당한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제와 레위인처럼 지나쳐 가시겠습니까?(루카 10,30-32 참조) 아니면 상처를 싸매 주고 필요한 것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적어도 119에 신고라도 하시겠지요. 그럴 일이 있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그렇게 우리는 조난된 사람을 보았을 때 신고를 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며칠 전, 날이 시원해지면서 오랜만에 혼자 산을 올랐습니다. 여러 루트 가운데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길을 선택했습니다. 초행이기는 하지만 이정표도 있었고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정표가 있었다고는 해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았던 길이었나 봅니다.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길이 끊겨 있고, 암벽 아래 다다르거나 덩불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쪽으로 가면 길이 보이겠지 하면서 덩불과 거미줄을 헤치며 비탈을 올라봐도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에서 먹으려고 싸왔던 아침 도시락을 되돌아가는 길 적당한 지점에서 꺼내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삶의 여정 역시 이런 길과 같다고, 목적지까지 무탈하게 가기도 하지만 새로운 길로도 들어서 보고, 때로는 잘못 들어서기도 하는 길과 같다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등산로에서 길을 잘못 들면 어느 정도까지는 왔던 길을 되짚어 돌아갈 수 있지만, 삶의 여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들, 길을 잃은 채 어쩔 줄 모르며 움짱달짝 할 수밖에 없는 이들, 그런 이들을 일컬어 우리는 조난당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실제로 조난된 이를 마주한다면, 신고를 하거나 무엇을 주거나 어떻게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을 베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 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조난된 이를 마주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나의 길을 계속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방향을 잡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 수도 없는 이들, 그래도 어떻게든 길을 가려 해도 헤쳐나가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이들이 바로 삶의 길에서 조난된 사람입니다. 영적 의미에서든 경제적 의미에서든 말입니다. 쌀쌀한 바람이 점점 강해지는 11월, 삶의 길에서 조난된 이들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



# 싸늘하고 우울한 세상의 이웃들에게

엘리 스미스, <가을>

정엄지 마르타 천사네 청년분과

엘리자베스는 이웃 사람을 인터뷰 해오라는 숙제를 하기 위해 옆집 노인 '대니얼 글럭'을 찾아가려 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이 영 탐탁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남들과 달라 보이는 대니얼을 두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는 딸을 붙잡으며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인데? 그녀가 보다 보통의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웃 사람이니까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엘리자베스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대니얼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이웃이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여덟 살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여든이 넘는 대니얼과 우정을 나누며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서로에게 알려주고 본 적 없는 그림을 상상 속에서 그려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총을 든 사람과 나무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 보기도 하고요. 엘리자베스의 세계는 낯선 이웃 대니얼과 함께 하는 낯선 놀이 덕분에 넓고 깊어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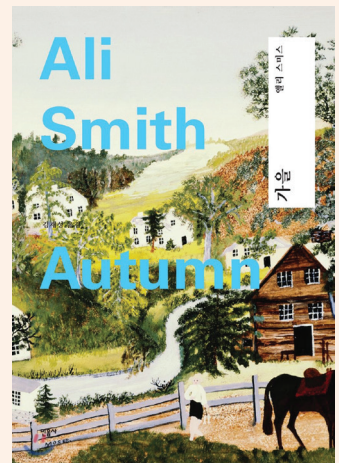
장편소설 <가을>은 엘리자베스가 유년 시절을 보낸 1990년대와 2016년 영국 사회를 오가며 펼쳐집니다. 2016년, 아이였던 엘리자베스는 서른두 살이 되어 제 몫의 일을 해내고, 노인이었던 대니얼은 백한 살의 더 늙은 노인이 되어 요양 병원에서 길고 긴 꿈을 꾸는 중입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자신과 다른 쪽에 투표한 이웃, 바다를 건너온 외국인을 당당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른이 된 엘리자베

스는 바라봅니다. 마을에는 높은 담장이 세워지고 도시에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고함이 심심찮게 들리지요. 어제의 이웃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었던 이에 대한 적개심은 더 짙어지는 세상. 엘리자베스가 바라보는 풍경은 늦가을 밤공기처럼 싸늘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요양 병원을 찾아가 자신의 늙은 친구 곁을 지킵니다. 대니얼이 눈을 뜰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대니얼의 곁에 앉아 그와 함께 보낸 시절을 되짚어보는 시간은 엘리자베스에게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울한 시대에 살아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장난스럽고 기묘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한 매체는 <가을>을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울한 시대에 살고 있나요? 그렇다고 답한다면 어쩐지 세상에 지게 되는 것 같아 멍청하게 되지만요. 서늘한 현실은 소설 속 인물들에게 그러했듯, 우리로 하여금 우울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웃과 나눌 참된 우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고 명료할 수 있을 겁니다. 어린 엘리자베스가 망설임 없이 내놓았던 답처럼. 🍂



## 탐욕과 전쟁 -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김현 안셀모 신부 해양사목



‘청빈의 사도’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택한 현現 교황님께서는 지난 삼중기도의 자리(2022.07.31.)에서 “전 세계의 모든 전쟁과 분쟁 뒤에는 재물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라며 전쟁이면의 탐욕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유에 대한 갈증이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소수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다수가 작은 것을 갖거나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역사상 볼 수 없었던 불의를 빚어내고 있습니다.”라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부는 누구도 가난하게 만들거나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참된 부는 물질적 재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이웃, 가난한 이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당부하시며,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멈추고 협상하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E.H. Carr, 『역사란 무엇인가』)입니다. 1,700년 전에도 탐욕으로 인한 전쟁이 빈번했음을 우리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Gregorius Nazianzenus, 326/30경-390경)가 남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

학자’(theologos)라는 별명을 가진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총대주교였지만, 죽을 때까지 가난한 구도자로 사셨던 분입니다. 교회사를 통틀어 권력욕에서 가장 초연했던 교부라고 사료되기도 합니다. 이 참된 신학자는 어려운 신학 문제들을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말장난으로 치부하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공감적인 언어로 풀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De pauperum amore을 통해 탐욕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우려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들은 땅에다 묻어 버리고, 어리석게도 싸움과 전쟁, 독재의 원인이 되는 금이나 은, 그리고 필요하지도 않는 값비싼 보석과 화려한 옷들을 쌓기에 분주합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조차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누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탐욕이며 어리석음입니까? 이들은 부와 가난, 자유인과 노예, 이런 구분과 차이가 선의 결핍으로 생겨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 25.)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6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요약) (2022년 11월 13일, 연중 제33주일)



##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2코린 8,9 참조)


몇 달 전, 세상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의 폭풍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실직으로 빈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경제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엄청난 파괴를 일으켜 왔던 국지전들에 더하여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어졌습니다. 무분별한 전쟁이 낳는 빈곤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두려움에 떨며 식량과 물과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전쟁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극심한 충돌 속에서 우리는 제6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거행합니다. 우리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가)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2코린 8,9 참조) 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도록 코린토 신자들에게 전한 바오로 사도의 권고를 다시금 성찰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코린토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매주 첫날 자신들이 아끼 수 있는 것을 봉헌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주일마다 거룩한 성찬례 거행 때에 우리는 공동체가 가난한 이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봉헌금을 모으며 같은 일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책임감으로 우리의 형제자매 가운데 아무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게 하려고 언제나 해왔던 일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그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게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고 이끄는 상호적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난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은 광채를 띠게 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존엄이 불의로부터 구해지기를 바라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 삶을 함께 나누고 가장 작은 이들,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자기 삶의 빵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가난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평등을 이루는 길, 가난한 이들을 비참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유한 이들을 허영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들 모두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가 자선을 베푸는 대상이기 이전에, 우리를 불안과 피상성의 덫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샤를드 푸코 성인은 부유하게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모든 이에게 가난한 형제가 되어 준 사람입니다. “가난한 이들, 작은 이들, 노동자들을 업신여기지 마시다. ...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분과 어울리곤 하였던 친구들이었습니다. ... 끊임없이 모든 것에서 가난해져서, 가난한 이들의 형제자매,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됩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고 가까이합시다.” 푸코 수사에게 이것은 바로 자기 삶이라는 선물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도록 이끄는 구체적인 생활방식이었습니다.

2022년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 우리에게 은총의 때가 되기를 빕니다. 이날 우리가 개인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양심 성찰을 하고,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이 우리의 충실한 친구가 되는지도 자문하여 볼 수 있기를 빕니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담화(전문)

## 정의평화위원회 활동과 소식

### + 10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약칭: 아세미)

10월 아세미는 10월 10일(월, 19:30) 가톨릭센터 소극장에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이며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인 구준모 선생을 초대하여 전기 민영화와 시장개방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접적인 한국전력의 민영화가 아닌 전력 생산을 민간 대기업이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공적자금으로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은 한전의 적자를 증가시켜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에너지 전력사업은 공공재로서 인간과 생태환경에 피해를 덜 주는 방식으로, 과정 또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소성리 평화미사>

지난 9월 5일, 태풍(힌남노)으로 취소되었던 평화미사를 10월 3일(10:00~18:30) 경북 성주 소성리마을회관 앞 천주교 상황실에서 봉헌하였습니다. 소성리 평화미사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사드를 반대하며 매주 월요일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돌아가면서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며 봉헌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교구 소성리 평화미사는 내년에 있을 예정입니다.



### + 2022 청년 사회교리 아카데미 수료미사

정의평화위원회(청년분과)에서 주최한 2022 청년 사회교리 아카데미 “이제 뭐하지?”가 17주간(6월 30일~10월 20일, 매주 목요일 20:00)의 과정을 마치고 수료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 수료한 12명의 청년들은 생소한 사회교리를 알기 쉽게 소개한 교재 ‘두캣(Docat)’을 중심으로 나눔과 강의, 다큐멘터리 영화관람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동·남천지구 소속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내년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 + 2022 정의평화 활동가 연수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김선태 주교)가 주최하는 <2022 정의평화 활동가 연수>가 10월 20일~22일(2박3일), 전주교구 평화의 전당(치명자산 성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연수에는 전국 교구에서 40여 명의 활동가가 참가하여 평화를 향한 연대와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심포지엄 참가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산하 6개 위원회(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등)가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주제: 난민은 누구인가?)이 10월 26일~27일, 대전교구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교황청 온전한 인간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이주사목국 차관보 파비오 바지오 신부의 “난민 돌보기 ‘가톨릭 교회의 사명’” 발표와 난민 재정착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 고 정순규 미카엘 3주기 추모미사 및 추모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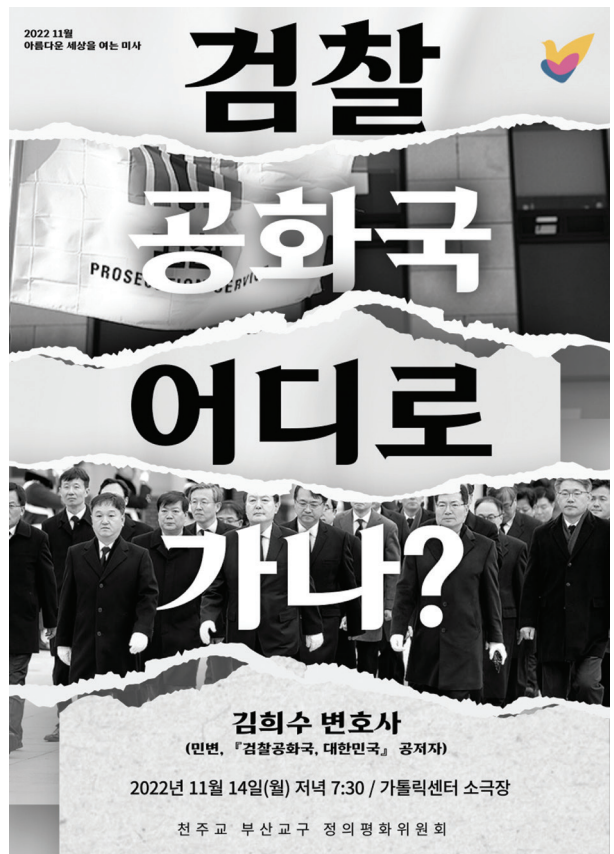
10월 31일(월) 11:00, 가톨릭센터 경당에서 부산교구 정평위와 노동사목, 서울교구 노동사목과 인천교구 노동사목이 공동으로 주최한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고 정순규 미카엘 형제의 3주기 추모미사'를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하였습니다. 또 이날 저녁(18:30)에는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주최로 <경동건설 고 정순규 노동자 3주기 및 부산지역 산재사망사고 노동자 추모제>가 서면에서 열렸습니다.

###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부산해양안전심판원(부산해심원) 2차 심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 조사와 침몰원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심판이 지난 8월 25일 1차 심리에 이어, 10월 13일 오후 2시, 2차 심리가 부산해심원에서 열렸습니다. 심리에 앞서 해심원의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9월 16일 ~ 10월 17일)

강운자 강인순(2) 강정웅신부 고은영 권성일 권용대(2) 권중희(2) 김경란 김경석 김경숙 김광숙 김선영 김인한신부 김중경 김진호신부 김흥기 나경문(2) 류창훈신부 류형숙 맹정은 박위옥 박정학 박종민신부 배미희 법무법인인심 법무법인부산 변지혜 서경혜 손석호 송석희(2) 신정금 심서경 심재영 아리 우무섭 유상우신부 유한이 윤명기신부 윤영훈 윤용웅 이미영 이봉룡 이성애 이소라 이영복 이우형 이윤호 이정기 이형규신부 장원창 전나미 전동묵신부(2) 전윤희 전태일 정성호신부 정종태 정호신부 조계환 조동기 조동성신부 조영심 주님의축복을 차광준신부 최상국 최우인 최재경 최혁신부 최현욱신부 하민진 하희설 허채현 황진 익명 | 원고 후원 | 김아영 김현신부 유상우신부 이철희신부 전동묵신부



**정의평화위원회를 후원(자동이체 신청)해주십시오.**

#### 정의평화위원회 후원계좌

- 농협 301-0465-9508-21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정평위)
- 부산은행 113-2000-8639-05

>> 보내주신 후원금은 정의평화위원회의 소중한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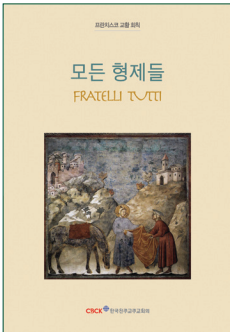
>> 후원인 가운데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된 분은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십시오. (☎ 051-465-9508)



#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길라잡이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쓰도록 영감을 준 이 형제적 사랑, 단순함(청빈, 가난), 기쁨의 성인은,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하여 새로운 이 회칙을 쓰도록 제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모든 형제들」 2항)



- 일 시 2022. 11. 9 ~ 16 (2주간 수요일) 오후 7~9시
- 장 소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
- 대 상 관심 있는 누구나
- 수 강 료 2만원 (정의평화위원회 후원인, 수도자 : 1만원)  
(부산은행 113-2000-8639-05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 입금 시 "이름+사회" 표기 (예: 홍길동사회)
- 교 재 회칙 『모든 형제들』 개별 구입
- 신 청 하 기 11월 3일까지 <https://bit.ly/3QXqTSD>
- 문 의 051-465-9508, busanjustice@naver.com



날짜	강좌명	강사
11월 9일(수)	평화의 회칙인 '모든 형제' 1 형제애(관계)와 인간 존엄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11월 16일(수)	평화의 회칙인 '모든 형제' 2 사회적 우애와 인간 공동체	

※ 정의평화위원회는 교황청에서 설립한 기구로서 복음을 토대로 사회교리 교육과 실천에 힘씁니다.



##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전화 051-465-9508 주소 48968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71 가톨릭센터 5층

이메일 busanjustice@naver.com 홈페이지 busanjustice.pbcbs.co.kr